

지역 매아리

부안군, 민방위 업무 '최우수' 도지사 기관표창 수상 영예

부안군은 17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4주년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에서 민방위 업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전북도지사 기관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부안군은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민방위대 편성 및 훈련, 민방위 경진대회 등 민방위 업무추진 전반에 걸쳐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기관 선정의 영예를 안았다.

실제 부안군은 지난 5월 을지태극연습 기간 중 전북도 시범훈련으로 다중이용시설 대테러·화재대비 종합대책 실제훈련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또 지난해 열린 전북도 민방위 경진대회에 참가한 남·여 민방위대 모두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 종목에서 우수한 기량을 발휘하며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오는 10월에는 전국 민방위 경진대회에 전북도 대표 자격으로 출전할 예정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번 최우수기관 선정은 유관기관단체와 민방위대장 및 대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얻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통합방위 안보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해 군민 모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부안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피해복구 신속·안전 최우선”

권익현 부안군수, 태풍 대책보고회 갖고 상황 점검·후속대책 등 논의

권익현 부안군수가 제13호 태풍 '링링'에 따른 신속하고 안전한 피해복구를 강조했다.

권익현 군수는 17일 부안군청 중회의실에서 태풍피해복구 대책보고회를 갖고 피해복구상황 점검 및 후속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는 안전총괄과의 피해상황 및 조치사항 총괄보고에 이어 각 실·과·소별 피해상황 및 복구대책 등을 보고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태풍 '링링'은 지난 2010년 태풍 '곶파스' 이후 9년 만에 서해상으로 상륙한 태풍으로 기상예보에서 우려했던 것보다 빠른 속도로 북상해 태풍경보는 16시간 만에 해제됐으나 34m/s의 강풍으로 부안지역 곳곳에 태풍의 흔적을 남기고 소멸했다.

부안지역은 태풍 '링링'으로 인해 인명피해 2명, 공공시설 3개 분야 6건, 주택 13동, 농업피해 2687ha, 시설물 13ha, 어선 6척, 수산분야 21개소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권익현 부안군수가 17일 부안군청 중회의실에서 태풍피해복구 대책보고회를 갖고 피해복구상황 점검 및 후속대책 등을 논의했다.

권익현 군수는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복구작업을 진행해 달라"며 "피해상황을 신속·정확히 파악해 군민들이 적정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권익현 군수는 "피해상황 조

사에 있어서도 군민들의 입장에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피해보상과 함께 재해보험을 통한 피해복구 방안도 면밀하게 검토해 군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부안=김석진기자

정읍시, 구철초축제 준비 만전

오는 10월 5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제14회 정읍 구철초 꽃축제가 전국의 관광객 맞이 준비에 한창이다.

제14회 정읍 구철초 꽃축제는 맑은 옥정호와 주변 산이 어울려 신비스러운 경관을 볼 수 있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구철초 테마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 축제는 총 6개 분야 36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지난 11일 제14 정읍 구철초 꽃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중간 보고회를 가졌다. 전반적인 프로그램 준비상황과 행사 운영 시스템, 교통대책, 안전대책, 먹거리 위생대책 등에 대한 진행 상황을 면밀히 검토했다.

특히, 잔년도에 비해 축제 기간이 긴 만큼 다양한 먹거리와 체험 등을 준비했다. 16일간의 축제 기간 동안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코스모스와 비늘꽃, 아스타 등의 꽃도 식재해 관리해오고 있다.

교통문제는 구철초 터널이 개통됨에 따라 국지도 5호선을 일반 통행로로 지정해 전년 보다 한결 수월한 차량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매표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전 8시로 한 시간 앞당겨 옥정호와 추경천에서 밀려오는 물안개가 소나무와 구철초에 내려앉아 있는 몽환적인 모습도 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타 시·군의 우수사례를 모범으로 삼아 구철초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며 "남은 기간 관리를 철저히 기해 아름다운 꽃 축제를 선사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금연계획률' 지표 개선사례, 질병관리본부 소식지 우수사례로 소개

정읍시의 '금연계획률' 지표 개선 사례가 질병관리본부의 월간 소식지 지역사회 건강과 질병 9월호에 우수 사례로 소개됐다.

'금연계획률'이란 흡연자 중 금연할 계획이 있는 흡연자의 비율이다. 앞서 시 흡연자의 금연 계획률은 지난 2015년 11.1%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2016년 4.0%로 현저히 감소했다. 전국(7.1%)과 전북(4.9%)에 비했을 때 낮은 수치다.

이에 대해 시는 금연계획률 개선을 위해 시민들에게 체계적으로 금연을

유도할 금연 지원사업 수행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그 일환으로, 시는 지난 2017년부터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토대로 체계적인 금연사업을 단행했다.

담배 없는 정읍을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 관계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흡연자 맞춤형 금연지원 서비스 △의료인 금연권고율 개선 △다각적인 홍보 채널을 활용한 금연문화 조성 등을 통해 금연 지원사업을 추진해왔다.

결과로 지난해 시 금연계획률은

9.3%로 인근 유사지역인 김제(1.6%) 등 전북은 물론 전국(5.8%)과 비교했을 때 월등히 높았다.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흡연자에게 금연 의지와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금연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담배 연기 없는 사업장 만들기 등의 이동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는 보건소 건강증진과 금연상담실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기자

“선운산 꽃무릇 구경하고 고구마도 수확해요”

고창군의 테마형 시티투어 '팜팜시골버스'가 이번주부터 가을 코스로 본격 운행에 나선다.

17일 고창군에 따르면 팜팜시골버스가 오는 21일부터 한달간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초가를 선운산의 운치와 고구마 캐기'를 주제로 가을철 기획코스를 운영한다.

참가자들은 국내에서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된 고창읍성 성곽을 둘러 나리와 공동체, 가족의 인연을 기원한

다. 친환경 우렁쌈밥으로 허기를 달랜 후에는 붉은 꽃무릇이 절정을 이룬 선운산 산책이 이어진다.

특히 오후 프로그램 중 '고구마 캐기 체험'은 '봄 딸기', '여름 블루베리'에 이은 남녀노소 오감만족 체험 프로그램으로 예약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여기에 생들기를 가공공장도 찾아 고창군의 건강한 먹을거리에 대한 홍보도 진행된다.

고창군은 팜팜투어와 연계해 제12회 선운문화제(21일), 제46회 고창모

양축제(10월3~7일), 대한민국 온천대축제(10월2~6일) 등 가을 축제를 적극 알릴 예정이다.

고창 팜팜시골버스는 토요일에는 익산역과 고창터미널에서, 일요일에는 광주문화예술회관 후문과 고창터미널에서 탑승할 수 있다.

참가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투어 마스터가 동행해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고창농촌관광 팜팜사업단 관계자는 "무르익어 가는 가을, 다채로운 한반도 첫수도 고창을 즐기길 바란다. 앞으로 팜팜투어시골버스의 코스 다양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북연구개발특구 활성화에 '총력'

정읍시, 지역 성장동력 창출 주력

정읍시가 농생명과학 첨단소재 기반의 연구개발 혁신을 통한 지역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주력하고 있다.

이용관 첨단산업과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는 17일 전북연구개발특구 본부를 방문해 전북연구개발특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앞으로의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전북 특구육성사업 참여 기업 발굴과 일자리 창출펀드 투자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논의가 이어졌다.

전북연구개발특구는 2015년 7월 전국에서 5번째 특구로 지정되어 전주·정읍·완주 등 3개 시·군 일원 4개 지구다.

매년 1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해 대학과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등의 참여로 농생명과학 첨단소재 기반의 연구개발(R&D)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전북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해 40여 개 참가 기업체에 연구개발특구 내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도 증진과 참여도를 이끄는 등 좋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또한, 그동안 정읍지구에서는 연구소기업 4개소를 설립하고 전북연구개발특구사업으로 7개 기업에 24억2천만원을 지원해 기술이전 사업화와 연구소기업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했다.

특구본부 관계자는 "전북연구개발특구 농생명융합거점지구인 정읍지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읍시와 지속적인 연계·협력을 강화하겠다"며 "일자리 창출펀드 투자기업 집중 발굴과 특구육성사업 참여 홍보 등 다방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가 개그맨 표영호 씨를 정읍시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소통전문가 '명품 정읍' 알리기 나서

정읍시가 개그맨 표영호 씨를 정읍시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인지도 높은 연예인이자 인기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표영호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 관광과 기업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유진섭 시장은 "각종 문화공연과 축제, 행사 등에서 홍보대사 활동을 통해 정읍시를 알리고 위상을 높이는 데 열정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표 씨는 앞으로 2년간 정읍시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된다.

표 씨는 각종 지역 행사와 방송 등을 넘나드는 적극적인 활동으로 정읍시의 풍성한 역사와 먹거리 등 다양한 매력을 전파할 예정이다.

특히 표 씨는 강연과 교육이카데미를 운영하는 등 다방면으로 활동하며 밝고 건강한 이미지를 갖고 있어 시의 브랜드 가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표 씨는 개그맨과 MC로 방송에서 맹활약을 펼쳤다. 현재는 소통전문가로서 스피치 교육에 힘쓰며 전국에서 가장 바쁜 강사로 최고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표 씨는 '방송인의 한 사람으로서 역사와 문화 자원이 풍부한 정읍시 홍보대사로 참여하게 된 것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정읍시의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를 많은 분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를 선택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참'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걸끔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강산뽕주 GIFT SET

GIFT SET 1세 | 750ml 2ea, 잔 2ea/16%

GIFT SET 2세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GIFT SET 3세 | 750ml 1ea/12%

GIFT SET 4세 | 500ml 2ea, 잔 2ea/12%

GIFT SET 5세 | 375ml 5ea/13%

GIFT SET 6세 | 500ml 향병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GIFT SET 7세 | 375ml 2ea/13%

부안 강산 뽕주
Premium Otdi Wine

TEL : 063-584-9900
www.gangsanwine.com